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4 No.1 Serial No.139 2016.2. 49~63

ISSN(print) 1229-1331
http://dx.doi.org/10.7466/JKHMA.2016.34.1.49

대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구조분석

Structural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University Students' Happiness

최민수(Min-soo Choi)[1], 조승현(Seung-hyun Cho)[2*]

[1]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wangju University,
[2]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Building Kkochcholong Child Care Center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a correlation of factors that have an influence on the happiness of college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actors on happiness of college students by analyzing the structure of influencing factors of happiness. To this end, 430 freshmen in college were selected and tested on character, self-esteem, self-leadership, and happiness. The measurement tools used in this study were the 30 questions of Character Scale that Choi Min-Soo and Im Eun-Young(2013) developed and modified by Im Eun-Young(2015), a Self-Leadership Scale of Manz(1998) classified into behavioral strategy and cognitive strategy that Wang Ji-Seon(2011) translated and modified. a Self-Esteem Scale(SES) of Rosenberg(1986) that the researcher modified and used, and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of Hills and Argyle(2002) that Choi Yo-Won(2002) translated and the researcher modified.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for correlation with happiness, self-esteem was .86, self-leadership was .74, and character was .66, and for correlation with self-leadership, character was .70, self-esteem was .66, and correlation between character and self-esteem was .57. Secondly, for direct effect on happiness, self-esteem was .62, character as .20, self-leadership was .19, and for direct effect on self-leadership, character was .49 and self-esteem was .38. Thirdly, indirect effect of character on happiness through self-leadership was .94 and indirect effect of self-esteem on happiness through self-leadership was .73.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it was identified that character, self-esteem, and self-leadership of college students are the influencing factors on happiness, and that self-esteem is the biggest influencing factor on happiness of college students among the three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university students' personality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self-esteem and that university students' personality, self-esteem, and self-leadership altogether had a direct influence on happiness. Moreover, both personality and self-esteem of university students had an indirect influence on happiness through their self-leadership.

▲주제어(Key words) : 인성(Personality), 자아존중감(Self-Esteem),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 행복감(Happiness), 예비유아교사(Pre-service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행복한 삶이라고 말한다(E. Diener, S. Oishi, & R. E. Lucas, 2003; S. Lyubomirsky, L. King, & E. Diener, 2005). 이와 같이 행복은 개인의 삶에 있어

• 본 논문은 2015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 Min-soo Choi,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wangju University, 277, Hyodeok-ro, Nam-gu, Gwangju Metropolitan 61743, Korea, Tel: +82-062-670-2318, E-mail: 3147531@hanmail.net

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긍정심리학 출현으로 행복 혹은 주관적 행복은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되고 있다. 긍정심리학 관점에서는 심리적 안정감, 행복경험, 만족감 등 긍정적인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C. Barker & B. Martin, 2009; M. E. P. Seligman & M. Csikszentmihalyi, 2000; S. I. O'Donnell, K. B. Chang, & K. S. Miller, 2014). 이러한 관점은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가능성과 긍정적 자원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S. I. O'Donnell et al.(2014)은 행복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나는 행복을 느낀다"는 정의적 측면의 행복이고, 둘째는 "나는 나의 삶이 행복하다"는 인지적 측면의 행복이며, 셋째는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생활사건과 영향을 고려하는 인지과정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상호작용 측면의 행복이다. 이와 같이 행복은 개인이 정의적, 인지적, 상호작용적 과정에서 각 개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행복(happiness)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개인의 인성적 특성은 행복 혹은 주관적 행복과 관련성이 높고(H. Cheng & A. Furnham, 2002; P. Steel, J. Schmidt, & J. Shultz, 2008; S. E. Ha & S. H. Kim, 2013), 이러한 주관적 행복은 자기존중감과 관련성이 있으며(J. H. Tak & H. M. Gang, 2014; O. F. Simsek, 2013; S. H. Park, 2015),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행복을 이끄는 사회심리적, 대처스타일, 건강,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데 관련이 있다(V. L. Dolbier, M. Soderstrom, & M. A. Steinhardt, 2001). 또한 Y. H. Lee, B. A. Choi, and Y. S. Chi(2005)의 연구에서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행복의 단서가 될 수 있는 항목으로 자기훈육, 배려, 희생, 양보, 솔직, 극기, 절제 등의 인성적 요소를 제시한 바 있다.

E, Diener, C. Nickerson, R. E. Lucas, and E. Sandvik(2002)는 "대학교 신입생 시절에 행복했던 사람이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S. E. Diener, S. Oishi, and H. C. Triandis(1998)도 경제적인 풍요보다 행복과 삶의 만족이 더욱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는 개인에게 있어서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대학생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G. H. Cha, 1999). 대학생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중간단계인 과도기적 시기를 겪으며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대학생들은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심리적·환경적 변화를 겪는 시기이기도 하다.

최근 우리는 고도성장과 개방된 정보의 홍수 및 물질적 풍요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삶 자체가 점점 삭막해지고 메말라져 가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도덕성의 결핍 및 정신문화의 황폐화 등 여러 가치관의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대학생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는 인격과 품성을 갖춘 인성(personality)이다. 대학의 다양한 전공영역 중에서 특히 유아교육이나 아동학 분야를 전공하는 예비교사는 나이 어린 유아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인성은 곧바로 유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H. W. Lee & S. J. Im, 2007; J. S. Gwon, 2002; M. A. Heo, 1999). 특히 예비유아교사는 유아가 가정 밖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중요한 사회적 모델이자 그들의 전인적 발달 및 성장에 기여하는 주된 모델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J. S. Yeom, M. S. Lee, H. S. Jo, & H. J. Kim, 2011). 유아는 교사의 사소한 언어와 행동을 보고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긴장 등의 부정적 감정은 교사뿐만 아니라 유아들에게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S. H. Park, 2015; H. J. Lee, 2001; H. R. Jeong, 2005). 즉, 행복한 교사일수록 높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교육자로서의 교수능력 및 교육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보다 열정적으로 직무에 임한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맡길 때 물리적 환경 못지않게 교사의 인성을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G. A. Byeon, 2008; M. J. Kim, 2007).

인간의 행동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동일한 환경 하에서도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개인의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S. B. Moon, 2003). 예비유아교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개인변인으로 인성능력과 관련하여, J. S. Jeon(2011)은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유아교사의 인성에 대한 일원화되고 포괄적인 개념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J. W. Lee(2014)은 유아교사의 인성 및 감성지능과 자아존중감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같은 직무스트레스라도 개인내적 동기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고 하였

으며, M. J. Jung and H. S. Choe(2014)는 인성의 한 측면을 의미하는 보육교사의 윤리의식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H. Y. Shin(2014)은 유아교사의 자질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인성적 특성이 가장 높았으며, M. J. Kim(2007)의 연구에서는 교사가 선호하는 유아교사의 자질은 인성적 특성 부분에는 유아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H. J. Im(2015)의 연구에서도 창의·인성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인성 각각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동시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밝혔고, H. S. Gwon(201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운동 교육활동이 그들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운동 교육이 대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부분의 안정감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인성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특히 예방적 차원에서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개인적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인정하는 가치로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성공을 기대하는 정도이며 한 개인의 중요한 내적 자원으로서 자기지지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J. E. Kim(2010)은 향후 유아교사가 될 예비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전체와 주관적 행복감 전체가 비교적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N. Y. Lee(2012)은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아존중감이 삶의 의미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는데 모든 관계에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삶의 의미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H. S. Park and S. E. Moon(2014)의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는데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삶의 만족도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이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은 대학입시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새로운 전공영역에서 학업성취와 진로, 인간관계 형성, 대학생활 적응뿐만 아니라 빠른 사회변화에 끊임없는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H. N. Lee et al., 2006). 대학생은 대학생활 동안 독립된 성인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으며, 건강한 심신과 유능한 성인으로 성장해야 하는 발달과업을 지닌다. 각 시기에 요구하는 발달과업을 잘 완수해 나하면 그 시기의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발달과업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그 다음 시기의 발달과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대학생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과정을 통하여 대학생들의 바른 인성적 특성을 기르고, 각 전공영역에서 전문성 발휘를 위한 셀프리더십을 강화하여 행복의 중요 요소인 자기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생활을 마치고 직장인이나 교사가 되어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성숙한 성인으로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성장하기 위해 갖추어야할 덕목 중 자기존중감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자기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말하며, 자신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자신에 대한 존경과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M. Rosenberg, 1979). 평소에 자신을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대학생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E. Diener, 1984).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를 이끌어 가는데 유익한 길잡이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대응하며 꾸준히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간에는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다(G. S. Kim, 2003; G. Kim & O. N. Kim, 1996; H. N. Lee et al., 2006; J. H. Tak & H. M. Gang, 2014). 또한 O. F. Simsek (2013)는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집단적 자기존중감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개인적 자기존중감은 집단적 자기존중감을 매개하여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대학생활을 통하여 꼭 갖춰야 할 덕목 중 하나는 셀프리더십이다. 대학생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가는 출발점에 서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발달과업 과제인 목표를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을 향상시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 셀프리더십을 생활기술 혹은 사회적 기술로 구분하여 셀프리더십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행동적 전략과 인지적 전략을 가진 셀프리더십으로 구분하여 도전과 시행착오의 기회가 많은 대학생들에게 셀프리더십을 가르치고 있다. 셀프리더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대학생 시기에 갖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셀프리더십 하위 요소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G. S. Kim, 2003). 또한 C. I. Dolbier, M.

Soderstrom, and M. A. Steinhardt(2001)는 27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과 대학생활에서의 사회심리적, 대처스타일, 건강, 그리고 학업성취 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결과에서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더 효과적인 대처스타일, 호의적인 인성특성, 건강과 학업성취의 증진에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덧붙여 셀프리더십은 낙천주의와 긍정적인 사고에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은 청년기에 습득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써 이는 대학생의 행복감에 원인 변인이 된다. 예비유아교사의 셀프리더십은 리더 중심이 아닌 추종자 중심의 리더십으로 타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 개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자신을 리더하여 동기화시키는 것이며(G. H. Lee, 2010), 지시, 명령, 통제, 보상, 처벌 등에 의해 발휘되는 전통적인 리더십보다는 자기 스스로 성취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정하거나 성취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자아비판이나 처벌을 하는 등의 자율성을 일컫는 것으로서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Y. S. Shin(2011)의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에서 자기존중감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였고, O. J. Choi(2011)는 유아교사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지적하였다. J. S. Wang(2011)은 유아교사들의 셀프리더십은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높은 수준이라고 하였고, 셀프리더십의 하위 요인에서 행동적 전략보다 인지적 전략의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 N. Y. Lee(2012)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의 하위 요소 중 행동적 전략은 대학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으나, 인지적 전략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동안 대학생의 행복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행복감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행복감과 인성 관련 연구(E, Diener et al., 2002, 2003; E. Y. Im, 2015; G. A. Byeon, 2008; G. H. Cha, 1999; H. J. Im, 2015; H. S. Gwon, 2011; H. Y. Shin, 2014; H. Cheng & A. Furnham, 2002; J. J. Jeon, 2011; J. W. Lee, 2014; M. A. Heo, 1999; M. J. Kim, 2007; H. R. Kim, 2014; M. S. Choi, & E. Y. Im, 2013; O. F. Simsek, 2013; P. Hills & M. Argyle, 2001; P. Steel et al., 2008; S. E. Diener, S. Oishi, & H. C. Triandis, 1998; S. E. Ha & S. H. Kim, 2013; S. Lyubomirsky et al., 2005; Y, W. Choi, 2002; Y. H. Kim & Y. J. Lee, 2013), 행복감과 자기존중감, 인성 관련 연구(A. S. Onen & F. M. Ulusoy, 2015; H. N. Lee et al., 2006; H. R. Kim, 2014; H. S. Park & S. E. Moon, 2014; H. Cheng & A. Furnham, 2002; I. J. Han, 2005; J. E. Kim, 2010; J. H. Tak & H. M. Gang, 2014; J. S. Gwon, 2002; N. Y. Lee, 2012; O. F. Simsek, 2013; S. H. Park, 2015; W. J. Gang, 2015), 행복감과 셀프리더십 관련 연구(C. C. Manz, 1998; C. L. Dolbier et al., 2001; E. J. Seong, 2010; H. Y. Shin, 2014; J. S. Wang, 2011; O. J. Choi, 2011) 등을 찾아볼 수 있다. 행복감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인성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졌고, 자기존중감 및 셀프리더십과의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인성, 자기존중감, 셀프리더십이 행복감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지에 대한 구조관계를 함께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상술한 행복감 관련 선행연구들을 결과 및 한계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이 사회진출을 앞두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행복으로 이끄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그것을 강화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J. U. Jang & U. J. Lee, 2009; S. Lyubomirsky et al., 2005),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스스로 행복증진을 위한 실천과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자아존중감, 인성능력, 셀프리더십 관련 연구들은 제한된 범위에서의 각각의 관계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관련 변인들을 서로 연계하여 요인들 간의 구조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행복감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행복감, 인성, 셀프리더십, 자아존중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각 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동시에 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각 요인들 간의 구조관계를 분석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결과는 향후 대학생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형식적, 혹은 비형식적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대학생을 위한 교육의 질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상술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 및 변인들의 관계구조에 대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인성, 자아존중감, 셀프리더십,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의 인성, 자아존중감, 셀프리더십이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인성,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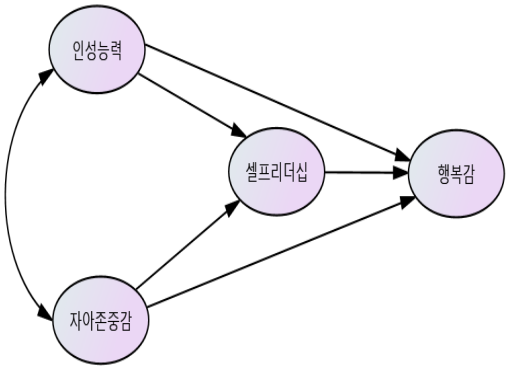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for Happiness Factors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를 신뢰롭게 추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연구대상을 얻기 위해 모수치 대 피험자 수의 비율에 대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S. B. Moon, 2013). 모수치(Parameters) 설정 방법은 모델 속의 모든 모수치 파악(모든 외생변수의 변량 14개, 외생변수들 간의 공변량/상관 1개, 변수들 간의 직접효과 5개), 단위 부하량 고정법에 따른 모수치 파악(각 잠재변인별 지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수를 1.00으로 고정키고 나머지 지표에 대한 량 산정 6개)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 따를 때 본 연구모델에서는 총 26개의 모수치를 지닌다. 따라서 1개 모수치에 따른 최소 피험자 수는 15-20명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390~520명이 필요하다.

설문대상은 3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G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G대학교 1학년으로 새로 입학한 유아교육과 80명, 간호학과 80명, 사회복지학과 60명, 신문방송학과 20명, 부동산금융학과 20명, 사회체육학과 60명, 사진영상학과 30명, 건축공학과 30명, 작업치료학과 40명, 문헌정보학과 25명 총 445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인성, 셀프리더십,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1학년 교양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학과목 담당교수가 학생들에게 설문참여 취지를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학생 개인에 따라 30-40분 정도 소요되었다. 수집된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문항에 체크표시가 누락된 15부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통계분석에 활용한 총 430부이다.

2. 측정도구

1) 인성 척도

인성 측정도구는 W. Y. Lee, C. W. Park, and Y. H. Roh(1993), Kindergarten Curriculum(1997), Standard Curriculum(2014), Nuri-Curriculum(2014) 등을 기초로 M. S. Choi and E. Y. Im(2013)이 개발하여 사용한 30개 문항을 E. Y. Im(2015)이 수정 및 보완하여 총 28문항으로 구성한 인성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하위 범주는 기본생활습관, 사회정서, 윤리도덕으로 구분되어 있고, '아니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944로 나타났다.

2) 셀프리더십 척도

셀프리더십의 측정을 위하여 C. C. Manz(1998)의 셀프리더십 척도를 J. S. Wang(2011)이 번역하여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는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의 범주는 행동적 전략, 인지적 전략으로 구분되어 있고, 설문문항에 대한 점수평정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왕지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행동적 전략 .77, 인지적 전략 .87이고, 본 연구에서의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947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의 측정을 위하여 M. Rosenberg(1986)의 The Ten-Item Rosenberg Self-Esteem Scale(RSES: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을 C. H. Kim(1995)가 수정한 것을 연구자가 수정 및 보완하여 내용타당도 및 신뢰도를 구하여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 10개의 문항 중에서 5개의 부정적인 문항을 긍정적인 문항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문항에 대한 점수평정은 '그렇지 않다 1점', '조금 그렇다 2점', '보통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하였다. 구조방정식에 따른 분석을 위하여 10개 문항을 2개의 꾸러미로 구분하였다. 수정 및 보완한 문항의 적절성에 대하여 20년 대학교수 경력을 지닌

2명의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전문가 2인에게 2회에 걸쳐 문항의 적합도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일치도가 .97로 나타났다. 내용타당도 사정과정은 두 전문가 간의 평정점수가 1 또는 2일 경우에는 적합성이 약한 것으로 (A)이고, 3 또는 4는 적합성이 강한 것으로 (D)로 분류하며 두 전문가 간에 평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B' 또는 'C'로 각각 분류해서 내용타당도 계수를 산정하였다. 내용타당도 산출 공식은 D/(A+B+C+D)로 나타낼 수 있다(S. B. Moon, 2003, 2013; P. Kline, 1993, 201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941로 나타났다.

4) 행복감 척도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P. Hills and M. Argyle(2001)의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를 Y. W. Choi(2002)이 번안한 것을 연구자가 수정 및 보완하여 내용타당도 및 신뢰도를 구하여 28문항을 사용하였다. 원래의 29개 문항 중에서 유사한 두 문항을 한 문항으로 통합하였고, 8개의 부정문항은 긍정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측정도구의 하위 범주는 내적행복, 외적행복, 자기조절행복으로 구분되어 있고, 문항에 대한 점수평정은 '그렇지 않다 1점', '조금 그렇다 2점', '보통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하도록 구성하였다. 수정 및 보완한 설문문항의 적절성에 대하여 20년 교수경력을 지닌 2명의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행복감 측정도구의 내용타당도를 위하여 상술한 방식으로 유아교육 전문가 2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문항적합도에 대한 상술한 S. B. Moon(2003, 2013), P. Kline(1993, 2011) 타당도 산정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96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감 척도의 신뢰도를 볼 때 Choi Yo-Won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926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PC 21, SPSS AMOS 22 버전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행복감 관련 요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으로 설정한 인성, 자아존중감, 셀프리더십에 대한 직접 및 간접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델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모델(Measurement Model)을 설정하여 모델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적합한 모델로 인정되어 구조회귀모델(Structural Regression Model)로 설정하였다. 측정모델에서의 모델적합도 추정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하여 4개 잠재변수(구인)와 10개 관측변수(지표) 간의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고, 구조회귀모델(Structural Regression Model)에서는 4개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위 부하량 고정법에 따라 잠재변인의 변량값을 1로 고정시킨 후, 모델인증 심사를 위해 모수치와 정보수를 파악한 다음 모델추정 가능성을 심사한 결과, 측정모델과 구조모델 모두에서 추정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측정모델과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지수는 CMIN, CFI, TLI, FRI, RMSEA 지수를 통하여 평가하였고, 요인들 간의 상관, 직접 및 간접 효과는 .05, .01, .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학생의 행복감 관련 요인들의 관계

대학생의 행복감 관련 측정 요인들 간의 기술통계를 산출하였다. 측정된 행복감 관련 요인들 간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된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의 정규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편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값을 산출하였다. 편도와 첨도 값에 대한 검토 결과 본 연구자료는 P. Kline(2011)의 기준에 따라 정규분표성(편도의 크기는 3보다 작아야하고, 첨도의 크기는 10보다 작아야 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대우도추정법(Maxium Likelihood Estimation : 표집의 특성에 따라 모집단이 나올 확률을 수학적으로 찾아 추정한 모수치)을 사용하여 모델부합도 및 모델의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각 측정 요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추정한 결과 및 통계적 모델의 변인들 간의 상관행렬은 <Table 1>, <Table 2>와 같다.

<Table 2>와 다음의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행복감 관련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볼 때 행복감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은 .86(.621～.723) 수준으로 가장 높고, 행복감과 셀프리더십과의 상관은 .74(.500～.718)로 다음으로 높으며, 행복감과 인성의 상관은 .66(.372～.623)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둘째, 셀프리더십 관련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볼 때 셀프리더십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은 .66(.561～.827)이고, 셀프리더십과 인성과의 상관은 .70(.480～.620)이며, 셀프리더십과 행복감과의 상관은 .74로 나타났다. 셋째, 인성능력과 자아존중감 간의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Skewness, Kurtosis of Character, Serf-Leadership, Self-Esteem, Happiness

	Case Number	Minimum	Maximum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Statistics	Standard Error	Statistics	Standard Error
1	430	8	30	22.09	3.619	-.231	.118	.639	.235
2	430	20	55	43.63	6.411	-.252	.118	-.164	.235
3	430	16	55	41.06	6.542	-.044	.118	-.116	.235
4	430	13	87	34.14	7.552	.658	.118	-611	.235
5	430	15	45	31.39	5.980	.020	.118	-.456	.235
6	430	11	45	29.76	6.063	-.034	.118	.353	.235
7	430	22	74	52.43	8.898	-.196	.118	-.0.23	.235
8	430	28	75	54.55	8.793	-.011	.118	4.981	.235
9	430	9	25	18.30	3.947	-.105	.118	-.238	.235
10	430	5	25	17.51	4.306	-.108	.118	.005	.235

1. Basic Life habits, 2. Social & Emotion, 3.Ethics & Morals, 4. Self-Esteem 1, 5. Self-Esteem 2,
6. Behavior Strategy, 7. Cognitive Strategy, 8. Inner Happiness, 9.External Happiness, 10. Self-Regulating Happiness

Table 2. The Correlation Matrix on Character, Serf-Leadership, Self-Esteem, Happiness

	1	2	3	4	5	6	7	8	9	10
1	1									
2	.641**	1								
3	.666**	.778**	1							
4	.410**	.431**	.550**	1						
5	.419**	.539**	.604**	.802**	1					
6	.480**	.457**	.620**	.827**	.783**	1				
7	.490**	.506**	.581**	.561**	.561**	.629**	1			
8	.499**	.573**	.623**	.634**	.621**	.658**	.848**	1		
9	.413**	.415**	.523**	.723**	.706**	.718**	.523**	.601**	1	
10	.379**	.372**	.468**	.716**	.708**	.699**	.500**	.577**	.851**	1

** p<.01
1. Basic Life habits, 2. Social & Emotion, 3.Ethics & Morals, 4. Self-Esteem 1, 5. Self-Esteem 2,
6. Behavior Strategy, 7. Cognitive Strategy, 8. Inner Happiness, 9.External Happiness, 10. Self-Regulating Happiness

상관관계는 .57(.410～.604)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인성, 자아존중감, 셀프리더십,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라는 연구문제1에 대하여 분석결과는 인성, 자아존중감, 셀프리더십, 행복감 간에는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측정모델에 대한 부합도 추정결과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형의 모델추정 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모델추정가능성 확인절차(S. B. Moon, 2013; P. Kline, 2011)에 따라 최대우도추정법에 의한 측정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측정모델 부합도 추정결과는 <Table 3>과 같다. 또한 측정모델에 대한 모수치 추정결과는 <Figure 2>와 같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모델 부합도 지수 평가에서 RMSEA(.062～.094) 지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모델부합도 지수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RMSEA, CMIN, CFI, TLI, RFI 모든 지수에서는 독립모델의 적합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MSEA 지수의 부합도 수준으로 볼 때 맞지 않는 정도가 .10보다 작아야 하고, CFI, TLI, RFI 지수의 부합도 수준으로 볼 때 .90보다 커야한다는 부합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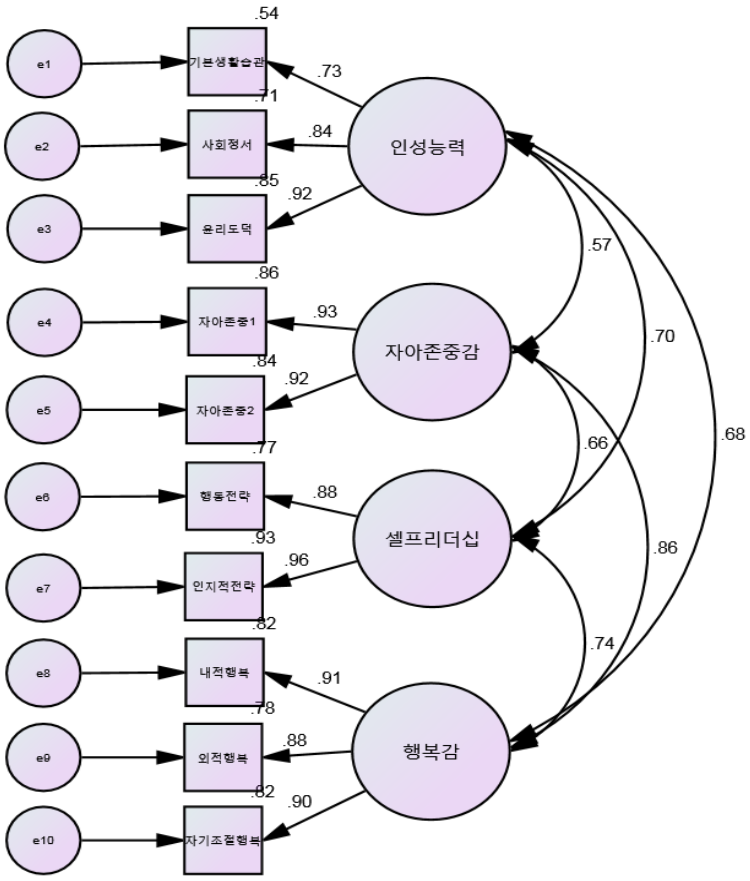

Figure 2. Maximum Likelihood Parameter Estimates for Measurement Model

Table 3. Model Fit Indexes for Measurement Model of Happiness Factors

모델	NPAR	CMIN	DF	p	CMIN/DF	CFI	TLI	RFI	RMSEA(.078)	
									Lo90	Hi90
측정모델	36	103.921	29	.000	3.583	.980	.970	.958	.062	.094

<Figure 2>를 볼 때 각 잠재변인과 지표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모든 잠재변수에 있어서 지표변수들의 회귀계수인 요인부하량이 .57에서 .86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부하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변수들 간의 상관정도를 검토한 결과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간에는 .86의 상관을 보였고, 행복감과 셀프리더십 간에는 .74의 상관이 있었으며, 행복감과 인성 간에는 .68의 상관을 보였다. 대부분 이론변수들이 측정모델을 통해 통계적으로 정확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측정된 이론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정한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측정모델의 충족조건은 첫째, 잠재변인 지표의 요인부하량이 너무 낮지 않아야하고, 둘째, 잠재요인 간의 상관계수가 .90 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S. B. Moon, 2013; P. Kline, 2011)는 모델설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3.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추정결과

통계적 모델을 구성하는 측정모델의 모델부합도 지수가 모델설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회귀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우도법추정법을 통하여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대부분의 지수는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Model Fit Indexes for a Structural Regression Model of Happiness Factors

모델	NPAR	CMIN	DF	p	CMIN/DF	CFI	TLI	RFI	RMSEA(.078)	
									Lo90	Hi90
연구모델	36	103.921	29	.000	3.583	.980	.970	.958	.062	.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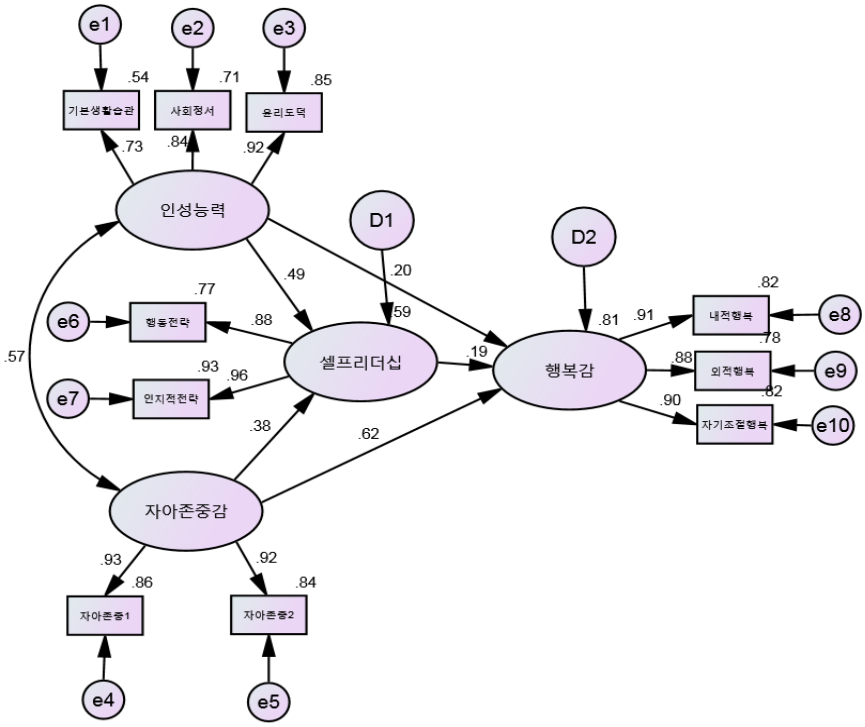

Figure 4. Maximum Likelihood Parameter Estimates for a Structural Regression Model

<Table 4>와 같이 구조회귀모델에 나타난 모델부합도 지수들이 통계적으로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본 연구모델 하의 모수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Figure 3>, <Table 5>와 같다.

<Figure 4>,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모델의 직접효과 및 각 요인별 변량은 .001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나고 있다. 첫째, 직접효과를 볼 때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표준화계수 기준으로 자아존중감 .623, 셀프리더십 .191, 인성능력 .196으로 나타나고 있고,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표준화계수 기준으로 자아존중감 .380, 인성능력 .489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공변량을 볼 때 인성능력과 자아존중감의 공변량은 표준화계수 기준으로 .565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인성능력, 자아존중감, 셀프리더십이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어떠한가?'라는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결과는 대학생의 인성능력, 자아존중감, 셀프리더십은 .001 통계적 유의도 수준에서 행복감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행복감 요인들에 대한 간접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회귀모델의 전체효과에 대한 직접 및 간접 효과를 분해하여 추정한 통계적 유의도 검증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 간의 직접 및 간접 효과를 분해한 표는 셀프리더십을 매개변인으로 했을 경우 인성과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설명해 주고 있다. 첫째, 인성능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289이고, 그 중에서 직접효과는 .196이며, 간접효과는 .094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696이고, 그 중에서 직접효과는 .623이며, 간접효과는 .094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Table 5. Maximum Likelihood Parameter Estimates for a Structural Regression Model of Happiness Factors

Parameter			Unstandardized Estimimates(B)	S.E	C.R.	P	Standardized Estimimates(ß)
			Direct Effects				
Serf-Leadership	←···	Self-Esteem	.755	.094	8.040	***	.380
Serf-Leadership	←···	Character	1.445	.156	9.282	***	.489
Happiness	←···	Self-Esteem	1.081	.076	14.281	***	.623
Happiness	←···	Serf-Leadership	.167	.042	4.008	***	.191
Happiness	←···	Character	.505	.115	4.385	***	.196
			Covariances				
Character	↔	Self-Esteem	5.888	.685	8.593	***	.565

*** p<.001

Table 6. Direct and Indirect Effects for a Structural Regression Model of Happiness Factors

Parameter			Standardized Estimates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Serf-Leadership	←···	Self-Esteem	.380	.380***	
Serf-Leadership	←···	Character	.489	.489**	
Happiness	←···	Self-Esteem	.696	.623**	.073**
Happiness	←···	Character	.289	.196**	.094**
Happiness	←···	Serf-Leadership	.191	.191**	

** p<.01, *** p<.001

인성,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어떠한가?'라는 연구문제 3에 대한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p< .01; p< .001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셀프리더십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대학생의 인성, 자아존중감은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행복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G 대학교 1학년으로 새로 입학한 430명의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인성, 셀프리더십,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이들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 고찰하여 요인들 간의 직접 및 간접 경로로 구성된 구조회귀모델을 설정하여 구조회귀모델이 실제 경험적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 및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인성, 자아존중감, 셀프리더십,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대학생의 인성, 자아존중감, 셀프리더십,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는 .01 수준에서 유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복감 관련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볼 때 자아존중감과의 상관은 .86, 셀프리더십과의 상관은 .74, 인성과의 상관은 .66으로 나타났고, 셀프리더십 관련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볼 때 인성과의 상관은 .70, 자아존중감과의 상관은 .66으로 나타났으며, 인성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는 .57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H. Cheng and A. Furnham(2002), P. Steel et al.(2008), S. E. Ha and S. H. Kim(2013) 연구에는 개인의 인성적 특성은 행복 혹은 주관적 행복과 관련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G. A. Byeon(2008), M. J. Kim(2007)의 연구에서도 인성과 행복이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관계에 대하여 E. Diener(1984), G. Kim, and O. N. Kim(1996), J. E. Kim(2010), N. Y. Lee(2012), M. Rosenberg(1979)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고, J. W. Lee(2014)의 연구에서도 어린이집 교사의 인성과 자아존중감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S. H.

Park(2015), J. H. Tak and H. M. Gang(2014), O. F. Simsek(2013)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행복은 자기존중감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셀프리더십, 자아존중감 관계에 있어서 G. H. Lee(2010)는 예비유아교사의 셀프리더십과 행복감에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고, Y. S. Shin(2011)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의 교육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 하였으며, C. I. Dolbier et al.(2001)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이 개인의 행복을 이끄는 사회심리적, 대처스타일, 건강,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데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에 근거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대학생의 인성, 자아존중감, 셀프리더십, 행복감 관련 요인들은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행복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인성이 강화되면 자아존중감이 높아져 자연스럽게 셀프리더십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의 행복은 한 가지 요인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성, 자아존중감, 셀프리더십 등 다양한 변인들과 서로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의 인성, 자아존중감, 셀프리더십이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대학생의 인성, 자아존중감, 셀프리더십이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자아존중감 .62, 인성능력 .20, 셀프리더십 .19로 나타났고,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인성능력 .49, 자아존중감 .38로 나타났다.

인성이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연구결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볼 때 E. Y. Im(2015), G. A. Byeon(2008), H. W. Lee and S. J. Im(2007), H. Cheng and A. Furnham(2002), J. S. Gwon(2002), J. S. Jeon(2010), M. A. Heo(1999), M. J. Jung and H. S. Choe(2014), M. J. Kim(2007), P. Steel et al.(2008), S. E. Ha and S. H. Kim(2013), Y. H. Lee, B. A. Choi, and Y. S. Chi(200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및 유아교사의 인성은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밝히고 있는 바 이는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연구결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볼 때 G. H. Lee and H. J. Lee(2006), G. Kim and O. N. Kim(1996), H. N. Lee, H. J. Jeong, and I. J. Han(2005), J. H. Tak and H. M. Gang(2014), M. Rosenberg(1979), N. Y. Lee(2012), O. F. Simsek(2013), S. H. Park(2015)의 연구에서 대학생 및 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간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밝혀진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C. I. Dolbier et al.(2001), E. J. Seong(2010), G. S. Kim(2003), H. N. Lee et al.(2006), O. J. Choi(2011)의 연구결과에서도 대학생 및 유아교사의 셀프리더십은 자아존중감과 개인적인 행복감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논문의 결과는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선행연구와의 논의에 근거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대학생의 인성능력, 자아존중감, 셀프리더십은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에서 지지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행복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질 높은 교육은 물론 다양한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과정을 통하여 인성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의 성공적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또한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적인 학문적 발달수준에 적절한 지도를 통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인성,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알아본 연구결과에서 변인들 간의 간접효과는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을 매개로 하는 인성능력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094,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매개로 하는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07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 볼 때, H. S. Park and S. E. Moon(201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교생활의 적응에 대한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고, N. Y. Lee(201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삶의 의미와 주관적 안녕감에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셀프리더십의 매개변인으로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행복감의 매개변인으로 보았고, 본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이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행복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연구모형을 다르게 설정하여 효과를 검증하였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 계속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에 따른 선행연구의 논의에 근거하여 다음의 결론을 제시한다.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인성능력,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행복감은 인성과 셀프리더십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또한 자아존중감과 셀프리더십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물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도 대학생의 행복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인성은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고, 대학생의 인성, 자아존중감, 셀프리더십은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인성과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셀프리더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의 결론에 따른 시사점, 제한점, 후속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이상 관련 변인들에 대한 구조관계에 대한 상관관계,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동시에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떠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한 가지 요인에 한정하지 말고 관련이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관련성이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에 대한 제한된 변인을 선정하여 그 효과를 밝혔다. 이후의 후속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 업무스트레스, 소진, 감정노동, 회복탄력성 등의 다양한 변인을 추가하여 변인들 간의 구조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변인과 변인 간의 구조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에 초점을 두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은 물론 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 인성, 자기존중감, 셀프리더십을 변인을 하는 구조관계를 통하여 상관관계, 직접효과,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셀프리더십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선행연구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준거로 논의하는 한계가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형태의 구조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Barker, C., & Martin, B. (2009). Dilemmas in teaching happiness. *Journal of University Teaching and Learning Practice, 6*(2), 1-14.

Byeon, G. A. (2008). *Comparison of perception towards desirable qualification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and kindergarten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Cha, G. H. (1999).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subjective feeling of security and individualism-collectivism. *Korea Youth Research. 10*(2), 193-21.

Cheng, H., & Furnham, A. (2002). Personality, peer relations, and self-confidence as predictors of happiness and loneliness. *Journal of Adolescence, 25*, 327-39.

Choi, M. S., & Im, E. Y. (2013). Measures for personality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for reinforcement of substances of nuri-curriculum targeting young children aged 3 To 5.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 56-75.

Choi, O. J. (2011).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early childhood teachers' self-leader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isty, Seoul, Korea.

Choi, Y. W. (2002). *Effect of emotional perception on the sense of happi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Diener, E., Nickerson, C., Lucas, R. E., & Sandvik, E. (2002). Dispositional affect and job out com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9*(3), 229-259.

Diener, E., Oishi, S., & Lucas, R. E. (2003). Personality,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Emotional and cognitive valuations of lif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 403-425.

Diener, S. E., Oishi, S., & Triandis, H. C. (1998). The shifting basis of life satisfaction judgments across cultures: Emotions ersusnor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2), 482-493.

Dolbier, C. L., Soderstrom, M., & Steinhardt, M. A. (2001).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leadership and enhanced psychological, health, and work outcomes. *The Journal of Psychology, 135*(5), 469-485.

Gang, W. J. (2015). *Relationship of organizational climat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s with teachers' self-development desire and sense of happi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Gwon, H. S. (2011). *Effect of psychomotoric education on*

personality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hin University, Gyeonggido, Korea.

Gwon, J. S. (2002).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reflexive thinking, level of reflexive thinking, and teaching abi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Ha, S. E.., Kim, S. H. (2013).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evidence from South Kore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1*(1), 341-359.

Han, I. J. (2005). *A study on self-esteem and job stres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ai Chai University, Daejeon, Korea.

Havinghurst, R. J. (1953). *Human development and education*. New York: Longmans.

Heo, M. A. (1999). *Effect of critical thinking-based teacher-young children linguistic interaction on creativity and interpersonal problem resolution thinking ability of you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Hills, P., & Argyle, M. (2001). Happiness, introversion extraversion and happy introver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595-608.

Im, E. Y. (2015). *Development & application of programs for personality education of young children based on value clarifi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wangju University, Gwangju, Korea.

Im, H. J. (2015). *Consideration of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influencing the creativity and personality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Jang, J. U., & Lee, U. J. (2009). The effects and development of promote happiness group counseling program. *Youth Counseling Studies, 17*(2), 121-138.

Jeon, J. S. (2011). *A study 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ersonality self-evaluation tool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Jeong, H. R. (2005).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public and private kindergarten teachers: Focusing on Gyeongin Reg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Jung, M. J., & Choe, H. S. (2014). A study on the child-care teacher's ethics and happiness.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88*, 21-39.

Kim, C. H. (1995). *The study of adjustment and self-esteem among adolescents who returned from abroad to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Kim, G. S. (2003). *University students & leadership*. Seoul: Hakjisa Publishing.

Kim, G., & Kim, O. N. (1996). Consideration of psychological welfare of single parent family. consideration of psychological welfare of single mother family. *Living Science Research Institute, 6*, 122-142.

Kim, H. R. (2014). *Exploration of variables influenc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sense of happi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Kim, J. E. (2010). *Relationship of preliminary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self-esteem with subjective sense of happiness and education belief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buk, Korea.

Kim, M. J. (2007). *Mothers' sense of happiness, attachment stability of young children & relationship with peer compet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Kim, Y. H., & Lee, Y. J. (2013). Validation of model on social anxiety, empathy, social skill, anger expression mod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influencing university students' sense of happines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3), 1687-1604.

Kline, P. (1993). *The handbook of psychological testing*.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Kline, P. (2011). *The handbook of psychological testing* London: Routledge.

Lee, G. H. (2010). Relationship among self-leadership,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 commi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Lee, H. J. (2001). *A study on factors behind mal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school life & measures of intervention in social projects of schoo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l University, Gyeonggido, Korea.

Lee, H. N., Jeong, H. J., Lee, G. H., & Lee, H. J. (2006). Relationship among self-resilience, sense of hap-

piness, and perception and response to 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7*(3), 701-713.

Lee, H. W., & Im, S. J. (2007). A study on teacher variables influencing teaching knowledg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reflexive thinking, emotional adaptability, motivati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7*(4), 126-146.

Lee, J. W. (2014). *Effect of day care teachers' personality, emotional quotient and teaching efficacy on job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won University, Gyeonggido, Korea.

Lee, N. Y. (2012).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subjective sense of security and life meaning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Lee, W. Y., Park, C. W., & Roh, Y. H. (1993). A study on development of sociality development program for young childre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3*, 113-125.

Lee, Y. H., Choi B. A., & Chi, Y. S. (2005). Guidelines of happiness from the cases in the "happy family sroty contest".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1), 41-51.

Lee, Y. J. (2013). *Effect of day care teachers' aptitude and sense of happiness on job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Lyubomirsky, S., King, L., & Diener, E. (2005). The benefit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6), 803-855.

Manz, C. C. (1998). *Mastering self-leadership: Empowering yourself for personal excellenc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Ministry of Education (1997). *The 6th Kindergarten Curriculum*. Seoul: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2014). *Nuri-Curriculum*. Seoul: Ministry of Education.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4). *Standard Curriculum*. Seoul: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Moon, S. B. (2003). *Reality of research methodology for preparation of thesis & dissertations*. Seoul: Hakjisa Publishing.

Moon, S. B. (2013). *Understanding & applic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Hakjisa Publishing.

O'Donnell S. L., Chang, K. B., & Miller, K. S. (2013). Relation among autonomy, attribution style, and happiness in college students. *College Student Journal, 47*(1), 228-235.

Onen, A. S., & Ulusoy, F. M.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ervice teacher's self-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levels. *Procedia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86*, 1163-1168.

Park, H. S., & Moon, S. E. (2014).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happiness. The mediating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2*(3), 197-218.

Park, S. H. (2015).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teaching aptitude and sense of teaching efficacy.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9*(2), 211-142.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Y: Basic Books.

Seligman, M. E. P. (2004). *Complete happiness(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Gwag. M. D. translation). Anyang: Moolpoore.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y, 55*, 5-14.

Seong, E. J. (2010).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Transformative Leadership on Psychological Feeling of Sec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Shin, H. Y. (2014). *A study on perception of teachers and parents towards qualification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Shin, Y. S. (2011). *Effect of self-leadership education progra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elf-esteem of particip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Simsek, O. F. (2013). Structural relations of personal and collective self-esteem to subjective well-being: Attachment as moderator. *Social Indicarors Research, 110*(1), 219-236.

Steel, P., Schmidt, J., & Shultz, J. (2008). Ref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34*(1), 138-161.

Tak, J. H., & Gang, H. M. (2014). Effect of Day Care

Teachers Self-esteem and Recovery Resilience on Their Sense of Happines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4*(5), 107-128.

Wang, J. S. (2011).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Teachers' Sense of 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Yeom, J. S., Lee, M. S., Jo, H. S., & Kim, H. J. (2011). *Theory of early childhood teacher*. Paju: Jeongjin Publishing.

□ Received: December 10. 2015
□ Revised: January 17. 2016
□ Accepted: February 2. 2016